9월5일

美 고용 냉각 신호와 달러 약세, 환율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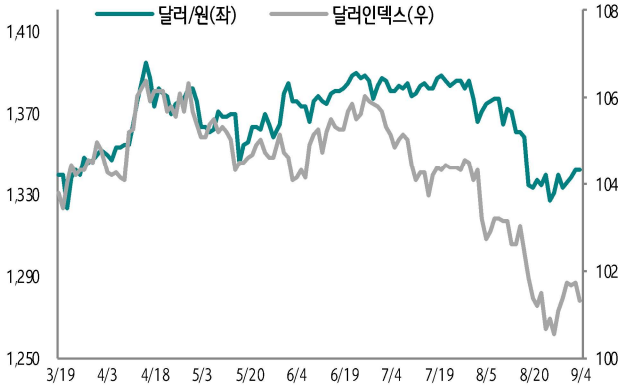
[USD/KRW]

USD/KRW 예상 : 1330~1339원
NDF 종가 : 1333.00 (Swap point : -2.50, 1335.50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 고용시장 냉각 시그널로 인한 달러 약세에 하락할 전망.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미 7월 구인건수와 구인배율 하락 등 고용 둔화세와 연준 베이지북의 경제활동 정체, 감소 지역이 늘었다는 평가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는 모습. 여기에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비둘기 발언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환율 하락 압력 나타날 것으로 예상. 다만, 경기 침체 우려 속 위험회피 심리가 상존하는 측면은 원화 강세를 제한할 요인. 이에 환율은 하락 압력 우위 속 1330원대 초중반 등락 예상
- (전일 동향) 4일 달러/원 환율은 미 제조업 경기 부진 속 위험회피 심리를 반영하며 1.8원 상승한 1343.2원으로 출발. 이어 양방향 수급과 달러 가치 하락에 0.8원 오른 1342.2원에 종가 기록(15:30). 미 구인건수 감소 소식에 달러 약세 나타나면서 5.4원 내린 1336.0원에 마감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미 경기침체 우려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 • 미 서비스업PMI, 실업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경계감	• 미 구인건수 감소 등 고용 냉각 신호로 인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 지역 연은 총재의 도비시한 발언과 달러 약세

KRW, USD Index



자료: 인포맥스

[Glob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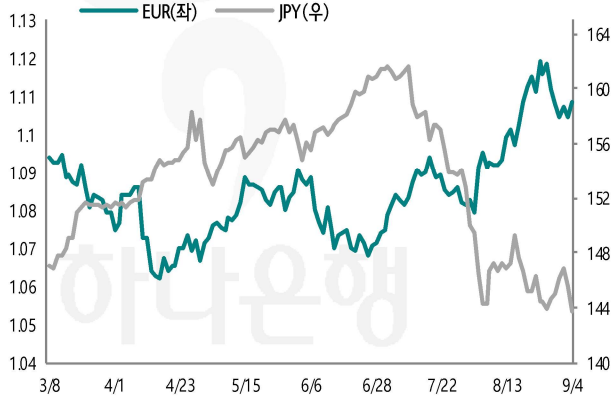
EUR/USD 예상 : 1.1054~1.1134
USD/JPY 예상 : 143.26~144.16

- (USD Index)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구인건수 감소 등 미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이 달러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달러인덱스는 0.46 하락한 101.29를 기록
- (EUR) 유로화는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가 금리인하 이후에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긴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9월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영향으로 강세. 유로/달러 환율은 0.0040달러 상승한 1.1084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미 제조업 경기 부진에 이은 고용 냉각 신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큰 폭의 강세를 시현. 달러/엔 환율은 1.73엔 하락한 143.76엔으로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종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101.29 (-0.46)	
EUR/USD	1.1084 (+0.0040)	1487.50 (+6.15)
USD/JPY	143.76 (-1.73)	933.72 (+11.67)
USD/CNH	7.1144 (-0.0061)	188.65 (+0.28)

EUR, JPY



자료: 인포맥스

[Macro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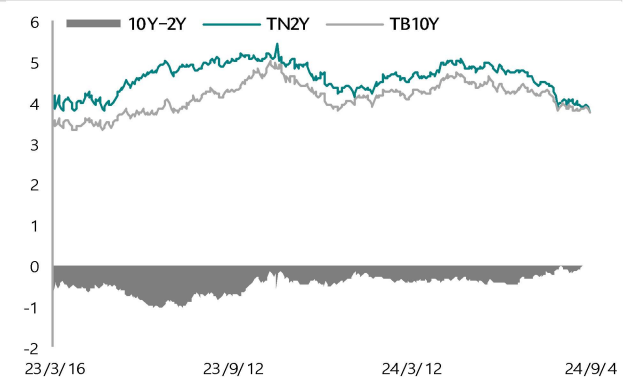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1.00bp (전일대비 +3.30)

- 글로벌 경제는 예상보다 둔화된 미 고용지표에 주목하는 모습. 미 7월 JOLTs 구인건수는 전월비 23.7만건 감소한 767.3만 건으로 예상치 809만건을 하회하며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 구인배율(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은 1.07배로 전월의 1.16배에서 하락. 연준 8월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평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하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이는 노동시장에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 미 구인건수 감소에 빅컷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 국채수익률은 2년물 10.90bp 하락 한 3.758%, 10년물 7.60bp 하락한 3.757%를 기록. 뉴욕 증시는 리세션 우려 속 혼조세 보이며 다우지수 +0.09%, S&P -0.16%, 나스닥 -0.30% 마감. 국제유가는 미 제조업, 고용 등 경제지표 부진에 하락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18:00	유로존 7월 소매판매(YoY)		-0.3%
21:15	미국 8월 ADP 비농업 취업자수(MoM)	136K	122K
21:30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31K
23:00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PMI	50.9	51.4

US Treasury Market



자료: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정 / 0117465** / 2024-09-05 08:01:41